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  
개회식(2021. 11. 10.)

# 개 회 사



2021. 11. 10.

존경하는 친bat 남질(Chinbat Namjil) AACC 의장님,  
지아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기관 대표단  
및 게스트 여러분!

AACC 연구사무국에서 개최하는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AACC 연구사무국은 2017년 출범이후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 그리고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AACC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재판관급 및  
연구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뵙지 못하여 무척 아쉽지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표를 준비해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번 회의가 폭넓고 심도 있는 교류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AACC 회원기관과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아시아 각국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보호하는 기본권의 다양한 측면과 공통의 가치를 동시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들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들을 함께 살펴보고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AACC 회원기관들이 공통의 인권기준을 모색하는 등 아시아지역 주민들의 동등한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노력의 기초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양극화, 기후변화 등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전지구적 변화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위기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기본권의 최종 수호자로서 헌법재판기관이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인권의 보편성에 주목하여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의 관계가 각국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의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는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경을 넘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그리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한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동반자일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동시에 특별한 우정을 쌓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AACC 회원기관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친히 참석하여 주신  
친뱃 남질(Chinbat Namjil) AACC 의장님과 지아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님,  
더불어 연구사무국의 부총장으로서 항상 지원해 주시는  
차오와나 트라이마스(Chaowana Traimas) 태국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과 압두마노브 라키모프  
(Abdumannob Rakhimov)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ACC의  
활동에 대해 주목해 주시고 이 회의를 위해 비교헌법  
관점에서 주제발표를 준비해 주신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마티헤 드 비사(Maartje De Visser)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하며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